광주 남구 투기과열지구 29일 풀릴 듯

"때늦은 해제… 부양책 뒤따라야"

업계 "대출규제 완화 등 수도권과 차별화 필요"

광주시 남구가 조만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등 광주 전역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상 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광주는 지난 7월 남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이후로도 여전히 주택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어 지방에 대한 건설경기 부양책이나 대출규제 완화 등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김석동 재경부1차관 주재로 부동산대책반회의를 열고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9일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시 남구 등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지고, 1가구 2주택자와 '최근 5년 이내 당첨자'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 만으로는 지방의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비투기지역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 데다 최근 광주에서 분양에 나선 업체 3곳의 청약률이 모두 '제로(0)'로 나타날 만큼 주택경기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분양시장 침체는 미분양 물량 급증과 중견건설사 줄도산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회복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광주는 지난달 현재 미분양주택이 9천215세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준공후 미분양도 2천583세대에 이른다. 또 9월 이후 광주·전남에서 부도처리된 업체가 10곳에 달할 만큼 업계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만으로는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릴 수 없게 됐다"면서 "지방 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양도세 감면범위 확대, 1가구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광주에서 아파트를 분양중인 A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대책을 지방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주택경기가 실종되다시피 했다"며 "남구만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수요자들의 투자심리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등 전반적인 분양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 초등생들 제주 문화 탐방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마련한 '제주도 문화탐방'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26일 광주공항 출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실시되는 문화탐방에는 전남지역 초등학교 4~6학년생 107명과 인솔교사 6명이 참여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내년 하반기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도

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개방 대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법률들이 대거 국회 심의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부는 지난 22일 식품산업진흥법, 도농교류 촉진법, 소·쇠고기 이력추적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의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 품질 개선을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식품명인 지정, 식품산업 컨설팅, 식품산업-생산자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림부 장관이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 법의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진행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통과와 함께 2004년부터 시범 운영돼온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 사육에서부터 육류 도축, 유통 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낱낱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축산농가가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출하 여부를 일정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도농(都農) 교류를 본격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도 마련됐다.

이 법은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 활성을 위해 ▲농어촌 마을 단위의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제 도입 ▲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근거 마련 ▲'공중위생관리법'을 비롯한 다른 법 적용 배제 등을 보장하고 있다.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에 '유효기간제'를 도입한다. 지금은 HACCP 작업장으로 지정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효력이 지속되나,앞으로는 3년마다 재지정을 거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연합뉴스

수입 절임배추로 만든 가짜 김치 단속

식약청 국산표시 조사
젓갈·고추가루도 대상

절임배추를 수입해 만든 가짜 국산 김치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장철을 맞아 김치 원료인 젓갈류와 고춧가루 제조업소와 수입김치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에서 6개 지방식약청은 젓갈류 및 고춧가루 제조업소 가운데 식품위생 관련규정을 상습 위반하는 위생취약업소 등 60곳을 선정해 유해물질이나 불량원료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16개 시도는 관내 업소에 대해 전반적인 위생지도·점검에 나선다. 특히 식약청은 절임배추를 수입해 만든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병든 고추를 사용하거나, 인체 유해물질을 첨가하는 행위 ▲수입김치(절임 배추)나 젓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 젓갈을 국내산과 혼합해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하는 행위 ▲무허가(신고) 원료 및 용기, 포장 사용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변조 행위 ▲젓갈류에 물을 섞어 양을 늘리는 행위(조미액젓 제외)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점검기간 중 젓갈류의 경우 대장균군과 합성보존료에 대해, 고춧가루는 아플라톡신에 대해 중점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팜스테이협의회 회장에 이윤배씨 선출

이윤배(56·강진군 성전면 청자골 달맞이마을·사진)씨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가 주관해 오고 있는 광주·전남팜스테이협의회 제 3대 회장에 선출됐다.

또 부회장은 추행호(49·해남군 북평면 동해마을)·김명호(40·영암군 덕진면 영보마을)씨, 감사는 선상업(55·영광군 염산면 두우리마을)·임동만(60·광주시 광산구 가산마을)씨가 맡게 됐다.

광주·전남팜스테이협의회는 팜스테이 참여농가의 자주적 협동체로 도농교류를 통한 상부상조와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결성됐다. /이종태기자 jtlee@

수도권 아파트 1채, 전남 5채값

2년간 수도권 집값 3.3㎡ 당 315만원 상승… 전남은 9만원 그쳐

최근 2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아파트값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같은 기간동안 평당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상승률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비록 올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2년간 신도시와 뉴타운 개발, 집값 담합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전역에 걸쳐 골고루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반면 비수도권 시장은 공급과잉의 여파로 여전히 가격이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3.3㎡(1평)당 아파트값은 평균 1천170만원인 반면 그 외 지역은 371만원에 그쳐,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3.1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11월 조사 당시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파트의 평당가격은 각각 855만원과 359만원으로 2.38배 수준이었다.

최근 2년동안 수도권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315만원(36.8%)이나 뛴 반면 비수도권은 12만원(3.3%) 오르는데 그치면서 가격 차이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이 기간 지역별 평당가격은 서울이 1천211만원에서 1천639만원으로 428만원 증가했고, 경기도(5대신도시 포함)가 271만원(688만원→959만원), 인천시가 161만원(481만원→642만원)씩 올랐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시가 86만원(348만원→434만원)으로 오름폭이 가장 컸다.

또 전남(208만원→217만원)은 10만원 미만으로 상승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순천·광양 제조업체 "내년 경기 좋다"

1분기 실사지수 '103'

순천과 광양지역 제조업체들은 내년 1·4분기 경기가 비교적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순천과 광양, 구례, 보성지역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03으로 나타나 업체들이 경기를 비교적 밝게 보고 있음을 반영했다.

BSI가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호전을, 그렇지 않으면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BSI 세부 항목별로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39), 경상이익(66), 자금사정(84)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생산설비 가동률·생산량(107)과 수출(121)이 늘어나고 설비투자(102)와 고용(113)은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1·4분기 중 회사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경영 애로점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중 43%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고 답했고 이어 자금사정 어려움(18%), 환율변동(10%), 노사관계(10%)를 꼽았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내년 5월 뜨는 저가 항공 '에어코리아'

국제선 요금 대한항공의 75% 수준

내년 5월에 설립되는 저가 항공사 '에어코리아(Air Korea)'의 국제선 항공요금이 모회사인 대한항공의 75-80%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건 대한항공 저가항공 태스크포스 상무는 26일 서소문 사옥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에어코리아의 요금은 대한항공의 75-80% 수준으로 동남아 저가항공사와 같은 수준"이라면서 "동남아 저가항공이 집중 투입되는 순수 관광노선에 투입해 승부를 걸겠다"고 밝혔다.

김재건 상무는 "3년 뒤에 50억원의 흑자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2012년에는 매출 2천500억원을 달성해 타이거항공 등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의 저가항공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